김현식
HYUNSIK KIM

Hyunsik Kim imbues flat enamel planes with depth and texture, working in the realm between painting and sculpture. His body of work includes hyper-realistic images of the backs of women's heads, trompe l'oeil waterfall landscapes, and vibrant, monochrome fields of color that put a modern spin on traditional Korean and East Asian painting. Hyunsik's work questions the seen and unseen, suggesting ambiguous narratives. His use of resin draws viewers' eyes to the surface and encourages them to look deeper and meditate on the image's many layers and spaces in between, not unlike the Japanese notion of "ma" (*negative space*).

1991
B.F.A in Fine Art at Hong-Ik University, Korea

Exhibitions

2012
Line, Gallery Leebae, Busan, Korea (solo)
Arumjigi, Horim Art Museum, Seoul, Korea

2011
Solo Exhibition: Hyunsik Kim, Fn Art Space, Seoul, Korea

2010
Illusion, Gallery LVS, Seoul, Korea (solo)
Korea Tomorrow, SETEC, Seoul, Korea
Byul Collection Now, K Aution Gallery, Seoul, Korea
Coexistence, Gallery Is, Seoul, Korea
FN News Art Festival, SeJong Museum, Seoul, Korea
A State of Flux, Gallery Ahso, Seoul, Korea
Two man show, Gallery Orem, France
Hyper Color, Gallery CK, Ulsan, Korea
33rd Anniversary Exhibition, Gallery Sun, Seoul, Korea
Ventriloquism of Images, Gallery inter alia, Seoul, Korea

2009
The Echo Wave, Gallery Club, Seoul, Korea
KIMSARTFIELD MUSEUM Opening Show, Busan, Korea
Art Miami, Miami Midtown Arts District, Miami, FL
21th Asian Contemporary Art, Christies, HongKong, China
KUNST 09 ZURICH, Bhf Zurich-Oerlikon, Switzerland
Alto-Hotel Artfair, Hotel Centum, Busan, Korea
KIAF 2009, COEX, Seoul, Korea
A Happy Accompany, Gallery the K, Seoul, Korea
Opening Show, Gallery Woolim, Seoul, Korea
Just now-Opening Show, Gallery Shinsegae, Busan, Korea
Heads & Fiqures, Gallery von Braunbehrens, Germany

2008
Beyond The Visible, Alliance France Busan, Busan, Korea (solo)
Beyond The Visible, Gallery Simyo, Seoul, Korea (solo)
In Between Spaces, Soul artspace, Seoul, Korea (solo)
The Soul of Contemporary Art, Insa Artcenter, Seoul, Korea
KIM JUNE & KIM HYUN SIK Exhibition, Urban Art, Seoul, Korea
KUNST 08 ZURICH, Bhf Zurich-Oerlikon, Switzerland
KUNST MESSE MUNCHEN, Germany
ART SINGAPORE 2008, Contac City, Singapore
ART TAIPEI 2008, Convention Center, Taipei, Taiwan
KIAF 2008, COEX Indian Ocean hall, Seoul, Korea
SOAF 2008, Urban Art, Seoul, Korea
On the face, Gallery Isang, Seoul, Korea
Tow man show, Ming Art Center, Beijing, China
The Opening of a Museum Commemorate, Busan Musem of Art, Busan, Korea

2007
Between spaces, Gallery Jung, Seoul, Korea (solo)
Arbazaar opening Exhibition, Gallery Arbazar, Busan, Korea (solo)
The First Story, Gallery Designer Zoo, Seoul, Korea
KAMIIN art party>, Gallery No, Seoul, Korea
The Best of The Best 20, INSA Art Center, Seoul, Korea

Contemporary Auction Show, Seoul Auction, Seoul, Korea
Art Singapore 2007, Exhibitidn Hall of ConTac , Singapore
KIAF 2007, COEX Indian Ocean Hall, Seoul, Korea
The Ulsan/Halifax(Canada)- Exchange Exhibition, Gallery H, Ulsan, Korea
A contemporary view 2007, Soul Art Space, Busan, Korea
Imagination-View, Gallery Jung, Seoul, Korea
Two man Exhibition, Gallery NC, Busan, Korea

2006
Slash space, Gallery NC, Busan, Korea (solo)

2005
Nuance, Gallery Insa, Seoul, Korea (solo)

2003
Time Hole, Gallery Aum Tae-Ik , Busan, Korea (solo)

2002
JIGO – From the long time ago, Gallery Insa, Seoul, Korea (solo)

2000
JIGO – A Spotted puppy smiled like a girl, Gallery Sum, Busan, Korea (solo)

1995
JIGO – Shadow, Gallery Boda, Seoul, Korea (solo)

1993
JIGO – Traveling, Samjeong Artspace, Seoul, Korea (solo)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

개인전
2012 선 | line線·zen禪 | 하다, 갤러리 이배, 부산, 한국
2011 김현식전, Fn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0 사이공간-Illusion, LVS 갤러리, 서울, 한국
2008 Beyond The Visible, 프랑스문화원, 부산, 한국
2008 Beyond The Visible, 심여화랑, 서울, 한국
2008 In Between Spaces, 소울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07 사이공간, 정갤러리, 서울, 한국
2007 아르바자르 개관기념전, 부산, 한국
2006 Slash space' NC갤러리, 부산, 한국
2005 Nuance, 인사갤러리, 서울, 한국
2003 Time Hole, 엄태익 갤러리, 부산, 한국

2002 지고-아주 오래전부터, 인사갤러리, 서울, 한국
2000 지고-얼룩강아지가 소녀처럼 웃었다, 대안공간 섬, 부산, 한국 1995 지고-그림, 보다갤러리, 서울
1993 지고-여행, 삼정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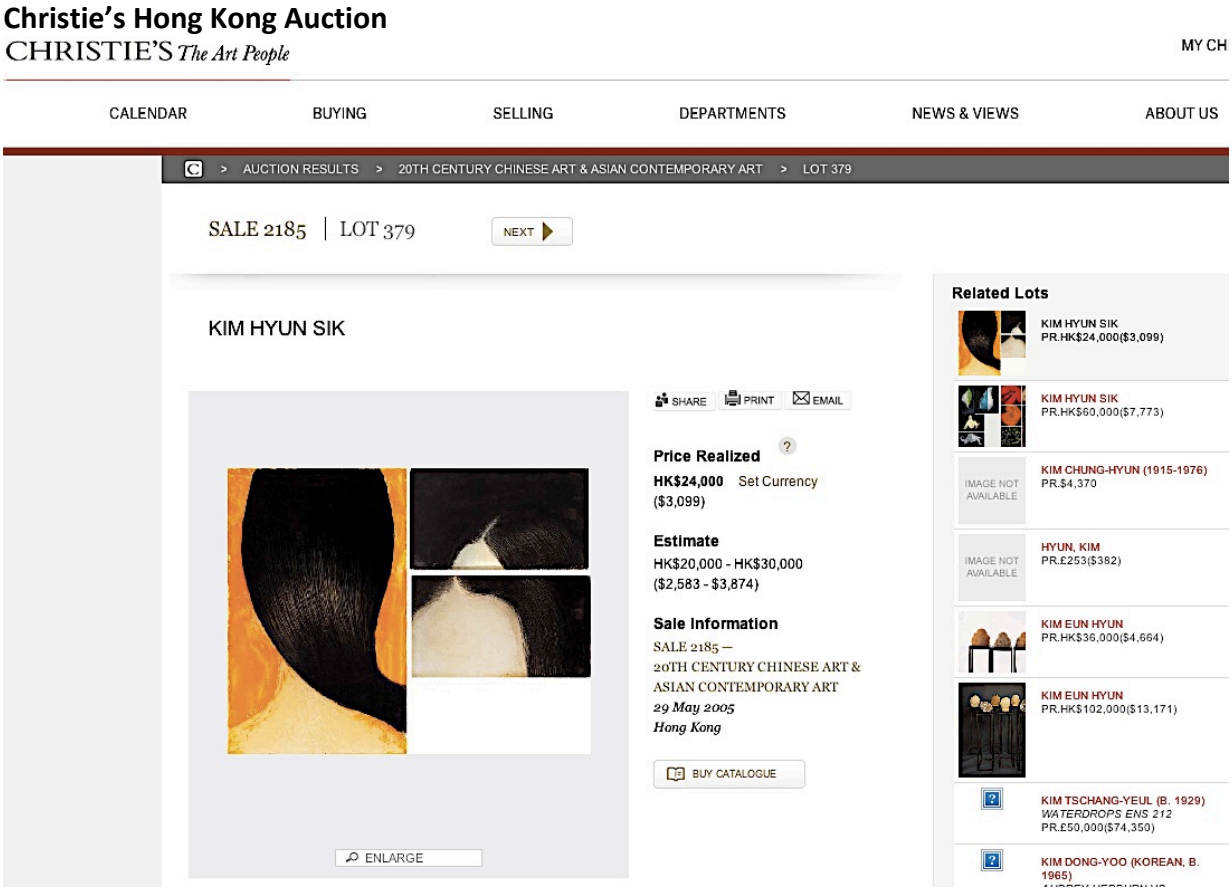
단체전
2012 아름지기, 호림미술관, 서울, 한국
2012 2011홍콩호텔아트페어, mandarin oriental hotel, 홍콩
2011 KIAF2011, LVS갤러리, 서울, 한국
2011 해피파운데이션/코리아투모로우2011,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2011 G20정상기념현대미술, 국회도서관/쉼박물관, 서울, 한국
2011 유토피아 유감-Dream in Dream,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한국
2011 홍콩호텔아트페어, mandarin oriental hotel, 홍콩, 한국
2011 Art Stage SINGAPORE 2011, Art seasons, Singapore
2011 Unique & Useful, 인터알리아, 서울, 한국
2010 Korea Tomorrow, Hzone , 서울, 한국
2010 BYUL Collection Now, 현대갤러리, 서울, 한국
2010 공존, 갤러리이즈, 서울, 한국
2010 파이낸셜뉴스 미술제, 세종미술관, 서울, 한국
2010 A state of flux, 아소갤러리, 서울, 한국
2010 Two man show , Orem 갤러리, 프랑스
2010 hyper color, CK 갤러리, 울산, 한국
2010 개관 33주년기념전, 선화랑, 서울, 한국
2010 이미지의 복화술, 인터알리아, 서울, 한국
2009 The Echo Wave, gallery Club, 서울, 한국
2009 킴스아트필드 미술관 개관, 킴스아트필드미술관, 부산, 한국
2009 ART MIAMI, Miami Midtown Arts District, USA
2009 아시아 현대미술, Christies HongKong, 홍콩
2009 KUNST 08 ZURICH, Bhf Zurich-Oerlikon , 스위스
2009 KUNST MESSE MUNCHEN, Messe Munchen , 독일
2009 KIAF 2009, 코엑스 , 서울, 한국
2009 알토-호텔아트페어, 센텀호텔 , 부산, 한국
2009 행복한 동행전, 더케이 갤러리, 서울, 한국
2009 우림화랑 개관기념전, 우림 화랑 , 서울, 한국
2009 우리 지금-센텀신세계 개관전, 신세계갤러리, 부산, 한국
2009 Heads & Fiqures, gallery Braunbehrens , Germany
2008 The Soul of Korean Contemporary Art,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8 ART MIAMI', Miami Midtown Arts District, USA

2008 김준, 김현식 2인전, 어반아트, 서울, 한국
2008 KUNST 08 ZURICH, Bhf Zurich-Oerlikon, 스위스
2008 KUNST MESSE MUNCHEN, Messe Munchen , 독일
2008 ART SINGAPORE, 컨텍시티, 싱가폴
2008 ART TAIPEI 2008, 대만
2008 KIAF 2008, 코엑스 인도양홀, 서울, 한국
2008 SOAF 2008, 어반아트., 서울, 한국
2008 이경화 ,김현식 2인전, 명아트센터, 북경798, 중국
2008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부산, 한국
2008 On the face, 이상갤러리, 서울, 한국
2008 Art Rome 2008, 로마, 이탈리아
2008 The First Story, 디자이너주 갤러리, 서울, 한국
2007 가미인 Art Party' 노화랑, 서을, 한국
2007 KAMI, The best of The best 20,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7 Contemporary Auction Show, 서울옥션, 서울, 한국
2007 Art singapore 2007, 콘택시티, 싱가폴
2007 KIAF 2007' 코엑스 인도양홀, 서울, 한국
2007 the Ulsal/Halifax(Canada)-PROJECT, H갤러리, 울산, 한국
2007 동질의 다양성'다빈갤러리, 부산, 한국
2007 Acontemporary view 2007,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한국
2007 Wind from east Asia ,상하이, 중국
2007 상상-뷰 창간기념전'갤러리정, 서울, 한국
2007 하용석 김현식 2인소장전, NC갤러리, 부산, 한국
2006 Another, 시청갤러리. 부산, 한국
2006 청담미술제, 서울옥션. 서울, 한국
2006 40-움직임 33인전'. 갤러리자미원. 부산, 한국
2006 와 人, 프랑스문화원. 부산, 한국
2006 가다-두번째 이야기, 보우갤러리. 울산, 한국
2005 작은그림전, 보우갤러리. 울산, 한국
2005 21세기 아시아 현대 미술전(11월). Christies HongKong, 홍콩
2005 ART SINGAPORE 2005, 콘택시티 컨밴션센터, 싱가폴
2005 오아시스를 찾아서, 롯데화랑, 부산, 한국
2005 크리스티,소더비 옥션작가 초대전, 표화랑, 서울, 한국
2005 21세기 아시아 현대 미술전(5월), Christies HongKong, 홍콩
2005 KIAF 2005, 코엑스 인도양홀. 서울, 한국
2005 ART TAIPEI 2005, 타이페이
2004 기억, 기록, 시청갤러리, 부산, 한국
2004 겨자씨의 외출, 피카소갤러리 . 부산, 한국

2004 함께 건너는 다리, 을숙도문화회관 . 부산, 한국
2004 GADA, 문화회관. 울산, 한국
2003 현대작가-3차원, 열린화랑, 부산, 한국
2003 부산현대작가전, 시청갤러리, 부산, 한국
2002 HAND IN HAND, 심여화랑 . 서울, 한국
2002 일회용품전, 유우갤러리, 부산, 한국
2001 부산현대작가전, 문화회관, 부산, 한국
2001 엄태익갤러리 개관기념전, 엄태익갤러리 . 부산, 한국
2001 가을동화전, A&D갤러리, 울산, 한국
2001 PCAG&TAC, 현대미술교류전 예술회관, 대구, 한국
2001 인공/생명전, 시립미술관 , 부산, 한국
2001 6인 입체+평면전' 대안공간 마루, 창원, 한국
2001 9시 뉴스전, 롯데갤러리, 부산, 광주, 한국
2000 20인 200호전,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2000 현대작가전, 현대아트갤러리, 울산, 한국
2000 새아침을 열며, 현대예술관 . 울산, 한국
1999 삶, 권력, 죽음전, 대안공간섬, 부산, 한국
1999 MESS, 피카소 갤러리, 부산, 한국 1999 부산현대작가전, 문화회관, 부산, 한국
1999 홍익전, 현대예술관, 울산, 한국
1998 21C청년작가전, 여의도, 서울, 한국
1998 홍익전, 문화회관, 울산, 한국
1997 울산예고 교,강사전, 문화회관, 울산, 한국
1996 신체없는 기관, 기관들' 금호갤러리 개관 기념전, 서울, 한국
1994 정신이 투영된 인간의 모습, 동호갤러리, 서울, 한국 1993 다시그림, 사각갤러리, 서울
1992 다시그림,' 청남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1989 Indepents,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1986 Indepents,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In Between Spaces” Hyunsik Kim

Christie’s Hong Kong Auction



Public Art Magazine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JULY 2014

미술관 교육시대

museum education

094
201407
ISSN 1975-6437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민중의 소리 “곡선과 직선의 대조, 김현식 최영욱 ‘삶에 대한 통찰’전”

민중의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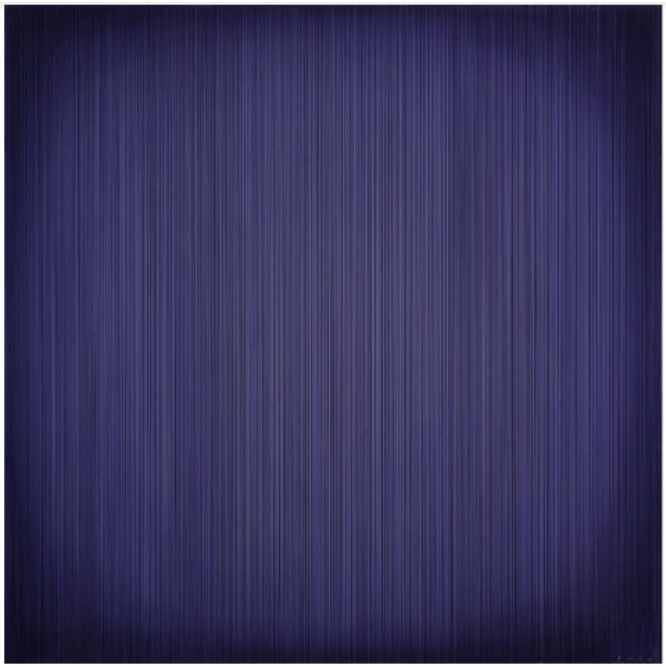
문화

곡선과 직선의 대조, 김현식 최영욱 ‘삶에 대한 통찰’전

이동권 기자 su@vop.co.kr 발행시간 2014-10-29 12:25:22 최종수정 2014-10-29 12:25:22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하기
후원하기

최영욱, Karma, 2014, 92x84cm, mixed media on canvas©소울아트스페이스 제공



김현식, Who likes gray, 2014, 90 x 90cm , 에폭시 레진, 아크릴채색©소울아트스페이스 제공

곡선과 직선의 대조로 색다른 감흥을 일으키는 김현식, 최영욱 작가의 〈 Insight into Life - 삶에 대한 통찰 〉전이 30일부터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최영욱 작가는 고요한 미색이 아련한 느낌을 주는 달항아리를 그린다. 반대로 김현식 작가는 풍부한 원색이 강렬한 느낌을 주는 추상을 그린다. 두 작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소재와 기법으로 현대 회화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게 만든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오랜 명상적 작업과정을 거치며 층을 쌓아 화면을 완성한다는 점이다. 두 작가는 보이는 것 이면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궤궤하게 작업에 임하고 있다.

최영욱 작가는 표면에 얇은 균열이 있는 커다란 달항아리를 그린다. 삶의 운명, 업, 연(緣)을 실선으로 연결시키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생을 비유한 것이다. 그가 표현해내는 항아리는 최대한 평면적으로 볼륨감이 상실된 모습이다. 반면 실제 도자기와 같은 항아리의 질감은 두껍게 얹어진 젯소와 채색에 수십 번 반복된 사포질을 통해 완성된 표면이다. 그 위에 그려진 수많은 실선들은 어떠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이어진 결과물이다.

김현식 작가는 투명한 레진에 수없이 많은 선들을 그으며 홈을 파고, 그곳에 안료를 채우는 방식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색도 형상도 없는 사이의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는 작품들은 긴 머리카락을 올려 맨 여인의 뒷모습, 바위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거쳐 현재는 원색의 화면에 선만 남겨진 추상작업이 됐다.

경상일보 [2015 달라지는 울산의 아트맵]

경상일보

인쇄하기 창닫기

[2015 달라지는 울산의 아트맵]울산 사람에게 익숙한 미술작품 즐비

(3)법원 청사에서 만난 울산미술

임영재·심수구·최명영 작가 등 인지도 높은 지역작가 작품 전시

2015년 01월 15일 (목) 홍영진 기자 thinpizza@ksilbo.co.kr

▲ 울산지방법원 2층 민원실 복도에는 김현식 작가의 컬러풀 한 작품 3점이 나란히 걸려있다.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곳곳에는 미술품이 흩어져 있다. 약 60여 점에 이른다. 복도, 계단, 휴게실, 로비 등 구석구석에 걸린 미술품을 다 보려면 집무동과 법정, 민원동을 오가면서 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림보기에 조금이라도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루할 틈이 없다. 작가의 지명도나 작품의 완성도가 전문 갤러리의 그 것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유난히 반가운 그림이 있다. 울산에 작업실을 둔, 친근한 작가의 낯익은 작품들이다. 신청사를 예술의 장, 소통의 장으로 만들려는 법원의 의도와 지역 화단에 대한 배려가 읽혀진다.

▲ 임영재 작가의 '둥지' 연작물이 법원 중회의실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김현식 작가는 울산에 작업실을 두고 있지만 정작 서울과 부산,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그는 평면 속에서 입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작가다. 그래서 선택한 재료가 투명한 레진(에폭시)과 칼이다. 레진을 깔고 표면을 긁어내듯 선을 긋는다. 레진이 굳으면 또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노동의 대가로 완성된 작품은 '반입체 반평면' '선(線)과 선(禪)'을 동시에 품은 새로운 한국미술로 세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조춘만 작가는 유일한 사진작가다. 현대중공업 생산현장에서 찍어 온 그의 작품 '골리앗'은 최상열 법원장의 집무실에 걸려 있다. 배관 용접공 출신인 그는 늦은 나이에 사진을 시작한 뒤 울산의 산업현장을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 강철과 콘크리트, 복잡한 철구조물은 그의 작품 속에서 하나의 미학으로 재해석 된다.

울산지법은 청사 내 미술작품 도록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어느 장소에 어떤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는지,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달 말께 나올 도록에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해설까지 실린다.

글=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사진=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 최상열 법원장이 집무실에서 청사 갤러리화 작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 전시회

SISAFOCUS

인쇄하기 창닫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 전시회

10월 30일~11월 27일 해운대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회 개최

2014년 10월 22일 (수) 17:51:33 진민경 기자 jmk4938@naver.com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김현식, 최영욱 작가의 전시회 <Insight into life - 삶에 대한 통찰>가 개최된다.

최영욱 작가가 그린 달항아리와 김현식 작가가 선보인 사이 공간은 서로 완전히 다른 소재와 기법으로 현대 회화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두 작가는 '보이는 것 이면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작품의 공통 주제로 삼는다.

김현식 작가는 투명한 레진에 계속해서 선을 그으며 홈을 파고, 그 곳에 안료를 채우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을 원색의 화면에 추상적으로 남기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최영욱 작가의 그림을 보면 달항아리 표면에 얇은 균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생각하는 삶의 운명, 업, 연(緣)을 실선으로 연결시키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생을 비유한 것이다.

김 작가는 "내 작업의 모든 관심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 이었다"며 "평면인 내 작품에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능하지만 시각적으로 분명 공간을 느낄 수 있다"면서 "레이어와 레이어의 사이, 그 사이의 모호한 경계 속에 사이공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전시회의 오프닝 환영회는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10월 30일에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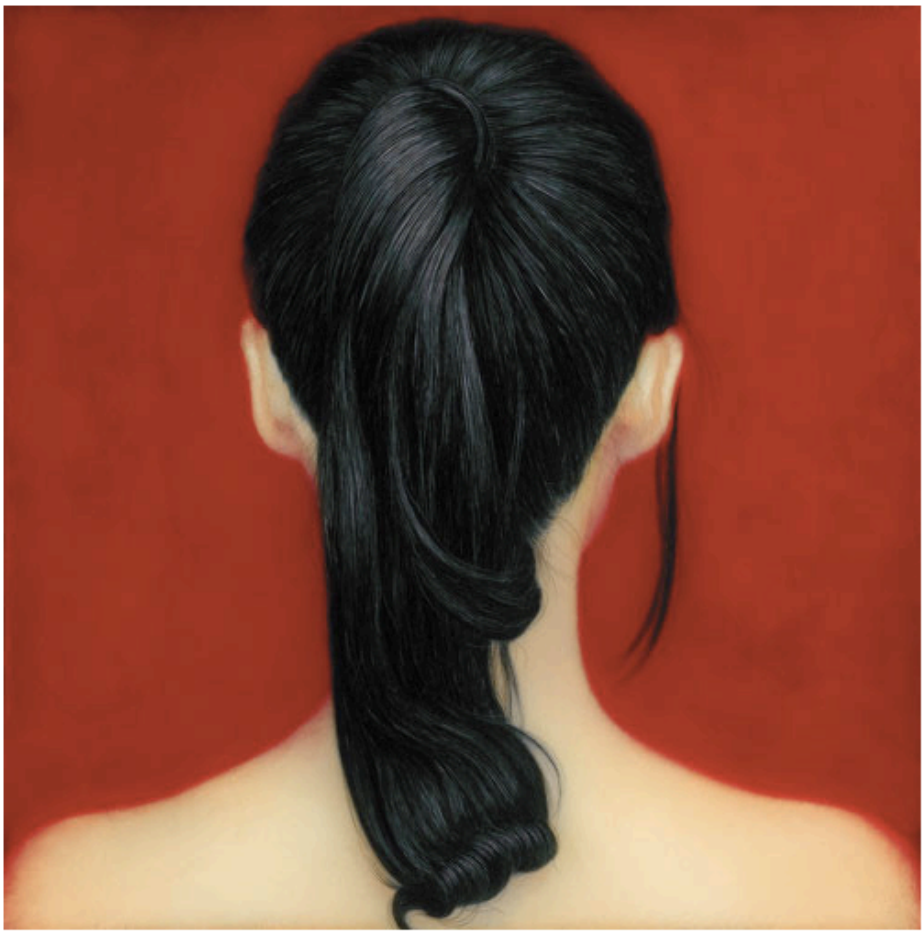
파이낸셜 뉴스 ‘머리카락 작가’가 그린 폭포…fnart 스페이스 ‘김현식 개인전’

파이낸셜뉴스
The financial news

인쇄하기 취소

‘머리카락 작가’가 그린 폭포.. fnart 스페이스 ‘김현식 개인전’

정순민 기자 입력 : 2011.08.30 17:08 | 수정 : 2014.11.05 11:54



▲ beyond the visible

파이낸셜뉴스가 운영하는 미술문화 자회사인 Fnart는 9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fnart 스페이스에서 일명 '머리카락 작가'로 불리는 서양화가 김현식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지난 6월 23일 서울 강북(삼청동)에서 강남(신사동)으로 옮겨 재개관한 fnart 스페이스는 조각가 박선기의 'Studio Part.1' 전에 이어 김현식 개인전을 통해 그간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동시에 선보였던 그룹, 단체전의 틀에서 벗어나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도 김현식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여인들의 뒷모습을 그린 '비욘드(Beyond)' 시리즈부터 청량감을 선사하는 폭포가 등장하는 근작 '일루전(Illusion)'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관객들은 인간의 신체와 자연이라는 극명한 변화 속에서 이질감보다는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재료나 제작 과정에서 오는 유사함 뿐 아니라 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線)의 흐름 때문이다. 한 올의 머리카락과 한 줄기의 폭포수 사이로 층위와 시간을 달리하는 선과 선이 만나 그 사이 공간을 채워가는 것처럼 선은 작품과 작품 사이의 간극마저도 메워준다. 속도감 있는 폭포의 물줄기 사이로 언뜻언뜻 삼단같은 머릿결이 보이는 것이 단지 착시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 illusion

홍익대 서양학과 졸업 후 그는 자신만의 화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특히나 평면이면서도 공간이 드러나는 반입체적 작품에 몰두했던 그에게 공업용 레진(resin)은 평면이라는 회화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투명한 레진을 이미지 위에 붓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선을 긋고, 다시 레진을 붓고 선을 긋는 과정을 반복해 이미지와 선들은 투명함 속에 고착된다. 그 과정 속에서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은 각각의 층을 형성하지만 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로 귀결된다.

그의 작품은 일정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가 들여다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그저 작품의 어두운 배경으로만 보였던 그곳에서 시대적 이미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동시대에 소비되는 이미지들이다. 작가는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패션 잡지에서 이미지를 선별해 지우개로 지운다. 형태와 윤곽만 남은 시대의 이미지를 레진을 통해 정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검푸른 배경은 시간을 초월한 환영과 환각을 불러일으켜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해준다.

김현식 작가는 "비욘드 시리즈가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기를 원했다면, 일루전 시리즈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붙잡히고 사라지는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환영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일까지 계속되며 오프닝 행사는 9월 1일 오후 3시 fnart 스페이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2)725-7114

/yuna@fnnews.com김유나 객원기자

파이낸셜 뉴스 [박현주가 만난 아트인] 폭포 시리즈를 선보이는 '머리카락' 작가 김현식

파이낸셜뉴스
The financial news

인쇄하기 취소

[박현주가 만난 아트人] (34) 폭포 시리즈를 선보이는 '머리카락' 작가 김현식

이보미 기자 입력 : 2010.10.28 18:22 | 수정 : 2010.10.28 18:21

▲ '머리카락' 작가 김현식이 여인을 버리고 변신을 시도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 신사동 갤러리 LVS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에서 폭포 시리즈를 선보였다.

칠흑의 삼단 같은 긴 머릿결. 목덜미를 드러낸 뒷모습 여인. 가까이, 가까이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의심스러운 그림. 그의 작품은 감상자로 하여금 두세 번 놀라게 한다.

"진짜? 진짜인가?"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나"라고 할 정도로 탐스럽게 한 올, 한 올 굽이치는 머리카락은 '손맛 폭풍' 카리스마가 작렬한다. 세밀한 겹침과 겹침으로 머리카락의 탄력성까지 느껴진다. 그러다 다시 본 그림은 평면이면서 평면이 아니다. 회화가 압축돼 있는 작품은 스스로 오브제가 된 채 입체감으로 빛난다. 시간에 박제된 듯 압착된 흑단 같은 긴 생머리를 가진 여인의 뒷모습은 '온 세상은 다 무언가의 은유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서양화가 김현식(48). 캔버스를 버리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레진과 에폭시로 그림을 만들어낸다. 지난 21일부터 김현식의 13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신사동 갤러리LVS(대표 이원주)에서 작가를 만났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검은빛과 보랏빛이 감도는 바탕에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 힘있게 굽이치는 파도가 발길을 잡아챈다. 멀리서 보면 산수화 같다. 머리카락의 변신, 작품이 변했다. 빨려들 듯 다가서게 만드는 작품은 소재는 달라졌지만 영락없는 '김현식표' 그림이다. 속도감을 가진 물줄기에서 삼단 같은 머릿결이 자꾸만 보인다.

■머리카락에서 폭포로 변신

'여인-사이공간'이 알려진 지 5년,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타이틀 '사이공간'처럼 변화된 작품은 '낯섦과 익숙함'의 사이에 있다. '변하지 않아도 죽고, 잘못 변해도 죽는다고 했던가.' 작가에게 변신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계속 쫓기면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도 머리그림 주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새 작업을 자꾸 미루기만 했지요. 하지만 자유롭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 쫓기는 삶, 그에게 과감하게 절단할 수 있는 채찍을 준 사람은 갤러리 LVS 이원주 대표였다. 개인전을 앞두고 새로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대표가 "그 버전으로 풍경을 그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이야기가 통한다 했는데, 작가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풍경을 그리라니 황당했다"고 했다. '웬 풍경?'하며 돌아섰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머리 그림도 애초 인체를 그리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나무를 보면서 자연적인 이미지를 가져온게 아니었던가. 어쩌면 나무를 풍경으로 풀 수 있겠다 싶었다.

"제 작품은 시간·공간을 표현합니다. 선과 선이 겹쳐질 때 공간들이 보이는 게 중요해 머리카락을 선택한 거죠. 이미지에 연연할 게 아니라 풍경 또한 내 식으로 내 스타일로 그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작은 돌멩이에도 생명이 있다는 말처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간성·생명성을 담아내면 폭포든 나무든 변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망친 시간과 실패, 좌절은 그를 키웠다. 햇빛의 명도가 쌓여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다시 가을이 되는 것. 그는 과거의 인내와 미래의 속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 김현식/사이공간-Illusion, 에폭시 레진, 아크릴,100×100㎝/2010

▪투명레진 '평면·입체공간' 창조

옆에 있던 이원주 대표는 "김 작가가 미련하게 끌어안고 온 작업은 이제 희열하면서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본 것이지 뭘 바꾸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작가에게 풍경을 제안했지만 풍경은 관심이 없었어요. 갤러리스트 입장에서는 붓질의 맛, 페인팅의 기술을 보는데 이 정도면 젊은 작가들이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그의 작품의 선은 한두 번 그어서 나오는 선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끊어짐 없이 한 획에 간들간들 떨어지는 선 맛은 오랜 연륜을 통과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

레진으로 작업을 시도한 것은 1991년. 조소과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재료였다. 독한 냄새보다 힘든 건 마음대로 되지않는 작품, 기포와 어그러짐, 겹침과 겹침. 레진은 다른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물질이었지만 지독히도 수련하게 했다. 2차원의 평면 속에 공간을 가두는 실험, 레진 위에 레진을 덧입혀 물감을 붓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하나씩 새겨낸 작품은 이제 포슬포슬하면서도 빛이 난다. 인고의 순간을 견딘 오기와 끈기, 그리고 열정은 그를 성공의 세계로 이끌어준 열쇠다.

작가에게 차별화는 생명이지만 레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했지만 도무지 내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고 보면, 이미 누가 한 것이었고 베낀 것 같은 작품이었죠. 평면이면서도 공간이 드러나는 반입체 그림에 몰두했고 그때문에 선택하게 된 게 투명 레진이었습니다. 이제 보면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저만의 작품이고, 공간으로 뛰쳐나간 프랭크 스텔라보다 다른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환영'

만지면 평면, 시각적 입체공간이 드러나는 '사이공간' 작품은 2005~2008년 홍콩 크리스티에 출품되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시작가보다 4배 높게 팔렸다. 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해외경매에서 수억원대씩 고가 낙찰된 스타 작가로 부상한 최소영·홍경택·김동유의 빛에 가려 그의 이름 석 자는 크게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때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얻었던 때"라고 회상했다.

"10여년 넘게 작품은 팔리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심지어 부인까지도 기대치가 떨어져 힘든 시기였는데 2005년 해외 경매사에서 팔리고 이후 싱가포르 등 해외 아트와 전시에서 작품이 솔드아웃되어 놀랍기도 하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는 내 작업에 대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대도무문(大道無門). 20여년째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리지 않고 지난한 세월을 이겨낸 그는 아직도 시간과 싸우고 있는 후배 작가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작가가 되고 싶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너무 빨리 이뤄지길 바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실험하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고정관념을 깬, 평면회화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는 그는 "미술은 창조적인 일이며 예술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존재"라며 웃음을 지었다.

"지난 작품들 제목은 사이공간(beyond)이었죠.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기를 원했다면, 이번 전시 제목이자 작품들의 제목은 일루전입니다. 환영, 환각이라는 뜻을 지니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것, 놓쳐지는 많은 것들에 대한 환영을 다시 꺼내보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붙잡히고 사라지는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환영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

새로 선보이는 '폭포 시리즈'의 강한 물줄기는 시간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재료의 물질성으로 층층이 쌓인 물줄기는 현재와 미래, 과거를 오가며 순간의 움직임을 시간과 공간 사이에 가두고 있다. 패션 잡지의 콜라주로 이루어진 짙은 검푸른 배경은 시간을 초월한 환영과 환각을 불러일으켜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하고 있다. 전시는 11월 16일까지. (02)3443-7475

/hyun@fnnews.com미술칼럼니스트

경상일보 [컬처파워] '사이공간' 통해 한국미술 새 가능성 개척 - 김현식 서양화가

경상일보

인쇄하기 창닫기

[컬처파워]'사이공간' 통해 한국미술 새 가능성 개척

김현식 서양화가

2014년 02월 17일 (월) 홍영진 기자 thinpizza@ksilbo.co.kr

▲ 김현식 작가의 작업실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한 '사이공간' 역작들이 걸려 있다. 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서양화가 김현식(49) 작가를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그는 울산에서 단 한번도 개인전을 연 적이 없다. 지역 미술인 대부분이 가입한 울산미술협회원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을 눈 여겨 보는 갤러리가 적지 않다. 대학을 졸업한 지 22년, 울산에서 작업을 한 지는 14년 째. 울산예고 미술교사로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울산에 눌러 앉았다. 전업작가인 그는 남과 다른, 유일무이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붓는다. 차별화된 미적 표현을 고집해 온 그의 작업들이 어지러운 작업실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다.

평면 속 입체적 공간 표현 위해 고심
투명한 레진 깐 뒤 선 긋는 작업 반복
선과 선 사이에 '사이공간' 만들어내
뉴욕·런던 미술관 등 러브콜 잇따라

◇작가의 생명은 '아이덴티티'

그는 미술의 역사를 '공간의 역사'라고 정의했다. 르네상스 시기의 원근법은 평면 속에 공간을 표현했고, 이후 피카소는 기존 공간에 대한 반발로 원근법을 파괴했으며, 몬드리안에 다달아 완전히 해체됐다는 것이다. 이후 미술계는 공간에 대한 해석이 더욱 대범해지며 각종 오브제가 나타났고, 평면을 벗어나 입체작품이 늘어나는가 하면, 설치미술처럼 경계가 모호한 장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 여인의 머리카락을 이미지화한 작품.

김 작가는 20여 년 넘게 유지해 온 자신의 고민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털어놨다. 평면 속에서 어떻게 남과 다른 방법으로 입체적인 공간을 표현할 것인지가 늘 관심이었다. 그가 선택한 재료는 투명의 재질인 레진(에폭시). 레진을 깔고 선을 그은 뒤 그 위에 또다시 레진을 깐 뒤 또 선을 긋는다. 그렇게 차곡차곡 채워진 작품 속에는 어느 순간 '반입체 반평면'의 이미지가 완성되고, 겹쳐진 선과 선 사이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사이공간'이 존재한다. 그 같은 작업은 지난 10년 간, 여인의 머리카락 이미지와 환영과도 같은 폭포 이미지를 거쳐, 요즘은 단순한 선(線)으로만 표현되는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을 거듭했다.

해외에서 그의 선 작업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없는게 없는게 아닌 것,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 등 서양의 '나싱'(Nothig)과는 다른 '무'(無) 개념을 피력하며 한국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활동을 최근 시작했다. 올 6월에 시작될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에 운영위원으로 동참하여 울산에 새로운 미술 트렌드를 선보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미술은 나를 표현하는 방편이다. 그 속에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다. 한 단계 성숙한 작업을 선보이기 위해선 끝이 없는 과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게 작가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그의 선 작업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없는게 없는게 아닌 것,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 등 서양의 '나싱'(Nothig)과는 다른 '무'(無) 개념을 피력하며 한국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활동을 최근 시작했다. 올 6월에 시작될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에 운영위원으로 동참하여 울산에 새로운 미술 트렌드를 선보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미술은 나를 표현하는 방편이다. 그 속에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다. 한 단계 성숙한 작업을 선보이기 위해선 끝이 없는 과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게 작가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식 작가는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했고 총 17회의 개인전과 'G20정상회담기념 현대미술전'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바젤 쇼' '아트 스페이지 싱가포르' '런던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